

# 社會主義式 都市計劃이 소련의 都市形態와 構造에 미친 영향\*

姜 景 元\*\*

(目 次)

I. 序論	2. 工業優先策
II. 10月革命以前の 러시아都市의 發達	3. 都市計劃原理와 그 體制
1. Gorodistsche 村落과 키에프國	IV. 都市發達の 變化象
2. 모스크바國	1. 規模와 機能에 따른 都市形
3. 古典主義 및 資本主義와 더불어 都市計劃의 展開	2. 人口集中과 都市化
III. 社會主義式 都市開發政策과 計劃原理	3. 都市構造變化
1. 開發目標	V. 結論

## I. 序論

도시에 관한 일반적 模型定立은 지리학의 주요 관심 중의 하나이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同心圓 構造理論, 扇形理論, 多核心理論 등의 고전적 모형들이 도시구조의 설명에 통용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례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의 모형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상과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형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소련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식 中央集權國家의 경우에는 計劃體制의 이념과 정책이 독특한 공간구조를 낳게 한다.

러시아의 10월혁명 이래 국토의 계속적인 발전의 방향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념에 일치되어야 했다. 도시의 구조 및 국토상의 공간구조는 독특한 사회주의식 계획원리에 입각하여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他文化地域에 비하여 상당한 부분에서 달리 각인된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도시의 변화상을 알아 보기 위하여 10월혁명 이전의 도시 발달상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둘째, 새로운 사회주의식 도시계획의 원리와 개요를 살펴보고, 끝으로 그러한 도시계획이 현재의 도시구조와 형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특히 마지막 두가지의 측면이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며, 사회주의식 도시계획과 결과적인 도시구조가 타 국가와 다른 점을 염두에 두면서 比較文化的인 서술을 해 나가기로 한다.

\* 본 논문은 1989년도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임

\*\* Dr.Phil. (지리학)

## II. 10月革命以前の 러시아都市의 發達

### 1. Gordistsche 촌락과 키에프( Kiew )國

고대 슬라브민족의 촌락, 소위 Gorodistsche 城은 드네프르( Dnepr )강안, 오카( Oka )와 볼가( Wolga )강의 상류부, 그리고 일멘( Ilmen )호수변 저지에 있었다. 비교적 잘 보존되어 전하는 폴랜드의 비스쿠피( Biskupin )호수변에 있는 고로드식 비스쿠피촌락은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것은 슬라브조상이 기원전 1세기 중엽에 세운 것이다. 보다 완벽한 유적은 볼가강지역에 있는 베레스나키( Beresnaki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볼가강과 소노흐타( Sonochta )강의 합류점에 건설되었는데,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존속했다. Gorodistsche 촌락이 자리했던 구릉은 상부가 평탄하고 소노흐타강이 삼면을 감돈다.<sup>1)</sup> 하나의 人工壕와 토벽에 의해 사방을 방어하였는데, 이 토벽은 이중의 목조벽 사이에 흙을 채운 형태였다.<sup>2)</sup> 이와 같은 유적들은 현재 소련의 도시에는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고고학적으로만 자취를 더듬을 수밖에 없다.

최초도시들의 발생은 7-8세기경 남부지역에서 시작되었다. 9세기에 와서 보다 규모가 큰 도시적인 취락이 바래게르( Waräger )에서 그리스에 이르는 大小路邊에 입지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키에프이다. 키에프는 노브고로드( Nowgorod ) 및 블라디미르( Wladimir )와 더불어 키에프국의 3대도시로 잘 알려져 왔다.

옛 키에프의 중심은 방어상의 목적때문에 드네프르강 수면에서 113m 가량 높은 대지위에 발달했다. 블라디미르도\* 키에프와 마찬가지로 可航河川인 클야스마( Kljasma )강안에 입지했다. 반면

노브고로드는 일멘호수변의 평지위에 자리했다.<sup>3)</sup>

야로슬로프( Jaroslaw )왕의 서거(1054)와 더불어 고대 키에프국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고, 키에프국은 12개의 주권국가형태로 분리되었다.<sup>4)</sup> 이리하여 러시아의 封建主義가 싹텄다. 주로 목재로 지어졌던 키에프도시들은 1240년에 타타르( Tatar )의 침입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 2. 모스크바( Moskau )國

다른 도시들이 타타르의 지배하에서 쇠퇴한 반면, 이 시기에 모스크바가 점차 번성하였다.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은 1147년에 모스크바강의 자연 제방상에 높은 담으로 싸여 건설되었다.<sup>5)</sup> 발전을 거듭하여 1271년에는 모스크바국내 小帝侯國의 수도, 1328년에 모스크바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반 3세는 모스크바 크레믈린을 근본적으로 개축하고, 국방을 위한 전략요충지로서 수도로 들어 오는 관문에 요새화된 城砦들을 구축했다.<sup>6)</sup> 이때 부터 모스크바는 러시아 전 도시의 표본이 되었다. 볼가강이 商業路로서 개통됨에 따라서 러시아도시들은 급성장하고, 도시는 점차 규칙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시베리아의 정복은 直交式 도시들을 낳게 하였다.

이 시대의 러시아도시들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상업과 수공업을 행하고 행정 및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이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 城廓都市인데, 크레믈린 혹은 城砦가 중심이 되었다.<sup>7)</sup> 성곽도시의 건설목적은 방어이었고, 그 立地選定은 키에프국의 도시에 준했다. 러시아의 크레믈린과 성채의 발달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기에는 크레믈린이 방어에 주목적을 두었는데, 점차 지역사회의 중심지와 통치자의 궁전으로 바뀌었다.<sup>8)</sup>

1) Bunin, A.W., 1961, *Geschichte des Russischen Städtebaus bis zum 19. Jahrhundert*, Henschel Verlag und Gesellschaft, Berlin, p.9.

2) Ibid.p.10.

3) Ibid.p.30.

4) Ibid.p.21.

5) Lydolph, P.E., 1964, *Geography of the USSR*, John Wiley & Sons, p.37.

6) Bunin, A.W., 1961, op.cit. pp.50ff.

7) Ibid.p.58.

8) Ibid.p.65.

### 3. 古典主義 및 資本主義와 더불어 都市計劃의 展開

봉건주의의 철페이라 상인계급이 도시건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17세기 말 부터 18세기 중엽은 러시아도시계획의 대전환기였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러시아도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평면형태와 건축물의 스타일이 크게 변모되고 발전되었다. 소위 古典主義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

이 시대의 큰 성과는 규칙적인 放射式 도시의 출현이었다. 페터 (Peter) 대제가 러시아 문화의 유럽화를 모색했기 때문에 외래의 기술인력을 빌어왔다.<sup>9)</sup> 페터대제는 먼저 모스크바에서 도시계획의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건축은 모스크바 북동부의 레포르토보 (Lefortowo) 지구의 설계이다. 대외진출의 열렬한 욕구에 따라 페터는 1712년에 페터스부르크 (Petersburg) 로 천도하기에 이르렀다. 페터스부르크의 종합적 도시설계는 Leblon 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영향이 러시아 전역의 도시형태에 미쳤다.<sup>10)</sup>

1700년경 시베리아를 제외한 러시아의 인구는 약 1,300만을 헤아렸고, 도시인구율은 3%미만이었다. 도시인구는 모스크바지역과 불가지역의 상공업도시에 국한되었다.<sup>11)</sup> 페터대제 이래 상공업도시의 발달은 심한 도시화와 대도시의 발달을 야기했다. 이때에 궁성 (Kreml) 은 요새로서의 기능을 잃고, 자체방어기능은 성채 (Zitadell) 들에게 넘겨졌다. 그 밖에 교회의 사회적 중심기능도 매우 축소되었다.<sup>12)</sup>

19세기 중엽에 와서 곳곳에 철도가 개설되고, 자본주의의 효시로서 自營事業이 등장했다. 게다가 크림 (Krim) 전쟁의 발발은 공산품의 생산증대

를 가속시켰다. 이때까지 공장기업의 입지는 地區制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나, 20세기 초에는 대도시 전역과 심지어 도심까지 확산되었다.<sup>13)</sup>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팽배에 따라 社會階層의 分化가 이루어지고 공간적인 계층분리현상도 동반되었다. 19세기 말엽에는 선진의 Paris 및 London 에 비할 만큼, 러시아 도시는 社會空間의 으로 분화되었다. 한 예로서 레닌그라드 (Leningrad) 의 공간분화는 대체로 8개의 主幹線 道路를 따라 각기 다른 職業分佈를 보여 준다.<sup>14)</sup> 그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와 住宅賃賃料도 도심에서 외연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bott 는 모스크바의 경우를 5개의 同心 圓構造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와 인구밀도가 도심의 거리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신체장애자의 비율과 幼兒死亡率의 증가가 현저하다.<sup>15)</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혁명이전까지의 러시아도시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대차없음이 명확하다. 이미 1917년에 대도시에는 中心業務地區 (CBD) 와 Slum 이 나타났다.<sup>16)</sup> 급속한 자본주의의 성장은 러시아도시 발달에 명확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하는 다음의 글귀에서 알 수 있다.

“...공장들이 주거지역에 깊이 침입하고 강안과 호안에도 섰다... 도시의 위생상태가 해마다 나빠졌다. 土地投機가 성행하였고, 주거공간은 노동자로 부터 착취수단인 공업적 용도로 전환되어 도시지역은 무계획적으로 되어 버렸다. 주택소유주는 이윤추구를 위해 가능한 한 대지를 고밀도로 이용했다. 그리하여 햇볕과 푸름이 없는, 어둡고 지저분한 돼지우리과 같은 집만 즐비했다...”<sup>17)</sup>

9) Parker, W.H., 1983. *The Soviet Union*, 2nd ed., Longman, p.21.

10) Bator, J.H., 1976. *St.Petersburg ; Industrial zation and Change*, Edward Arnold, p.22.

11) Bunin, A.W., 1961, op.cit.p.103.

12) Ibid.pp.105 - 106.

13) Bator, J.H., 1976. op.cit.pp.208 - 209.

14) Ibid. p.197.

15) Abbott, W.F., 1982, "A Test of the Inverse Burgess Zonal Hypothesis.", ed.G.A.Theodorson, *Urban Patterns ; Studies in human Ec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398 - 405.

16) French, R.A., 1979. "The Individuality of the Soviet City, ed.R.A.French & F.E.I.Hamilton, *The Socialist City*, John Wiley & Sons, p.79.

17) Deutsche Bauakademie, 1960. *Städtebau in der Sowjetunion*, Berlin, pp.9 - 10.

한편 농업인구는 1860년경 약 90%였고, 인구의 사회적 피라미드의 넓은 저변을 형성했다. 국민 대다수의 가난과 기근이 사회불안과 부족한 국가자본형성의 원인이었다.<sup>18)</sup> 이러한 후진성과 사회불안이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이후의 도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는 했으나, 가로망 및 건물의 형태와 산업의 분포 등에 있어 그때의 많은 자취를 남기고 있다.

### Ⅲ. 社會主義式 都市開發政策과 計劃原理

#### 1. 開發目標

신생 소련정부는 짜르가 통치해 온 러시아로부터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넘겨 받았다. 공산정부는 '계급없는 사회'라는 모토 아래 종래와는 전혀 상반하는 理想的 社會를 추구하였다. 경제정책가의 당면과제는 계급없는 공산주의적 '欲求에 따른 分配'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태도는 도시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소련의 도시정책은 공산사회를 성립하게 하는, 물질적 욕구충족의 수단이므로 도시구조나 건축물의 형태도 사회적 요구에 수렴해야 한다.

개발의 목표는 전 국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두며, 궁극적으로 社會主義式 生活方式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전반의 産業化를 우선적 과제로 노정하고, 이에 따른 全國土의 都市化를 모색한다. Marx-Lenin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선진의 도시화주의는 사회주의생활방식의 개발에 첨경이라 인식되어 왔다.<sup>19)</sup>

#### 2. 工業優先策

제1차 5개년계획(1928-1932)이 있기까지 불세비키 주도하의 산업화는, 私有財産의 國有化와 住宅의 再分配를 제외한다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한 사회적 價値變革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핵심으로서 여전히 추구되었다. 1930년대 이래 공업화의 박차가 사회주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정책은 '産業天國'을 지향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은 주로 산업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데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스탈린시대에 있어 新工業都市의 건설은 國家基幹産業施設의 입지에 종속되었다. 즉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였다. 신공업도시내에서는 우선 생산활동이 개시되고, 다른 서비스기능과 주택공급은 차후의 문제이었다. 2차대전의 폐허로부터 재건을 함에 당연히 생산활동이 우선되어야만 했다. 1928년부터 1954년까지 주택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총예산의 17.9%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은 이 시기의 후반기 5년동안에 투자되었다.<sup>21)</sup>

자본 및 물질자원의 부족과 관련하여 私的 欲求에 앞선 集團의 이해의 충족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업정책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의사결정자들은 근본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다.<sup>22)</sup> 스탈린시대 때는 마그니토고르스크(Magnitogorsk), 스탈린그라드(Stalingrad, 일명: Wolgograd), 노보쿠즈네츠크(Nowokusnezk)와 같은 많은 신공업도시가 생겨났고, 키에프, 하르코프(Charkow), 로스토프(Rostow), 고르키(Gorki) 등과 같은 대도시는 급격한 인구집중을 나타내 보였다.

생산외적 관심의 일환으로 일부 국한된 지역에

18) Raupach, H., 1979, *Wirtschaft und Gesellschaft Sowjetrußlands 1917-1977*, Steiner, Wiesbaden, pp.9 - 10.

19) French, R.A., 1979, op.cit.p.73.

20) Bater, J.H., 1984, "The Soviet City: Continuity and Change in Privilage and Place", ed.J.Agnew, J.Mercer and D.Sopher, *The City in cultural Context*, Allen & Unwin, Boston, p.140.

21) French, R.A., 1979, op.cit.p.79.

22) Karger, A.u.Werner, F., 1982, "Die sozialistische Stadt", *Geographische Rundschau*, Jg.34, Heft 11, p.520.

도시계획이 시행되었으나, 그 목적은 이념과 깊이 관련되었다. 전쟁의 폐허후에 권력의 象徵物들만은 개조, 재건 또는 신축을 통해 극히 강조되었다.<sup>23)</sup>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주택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개발사업에 박차가 가해지고, 획일적인 공업화는 다소 누그러졌으나, 산업전국의 이념은 지속되고 있다.

### 3. 都市計劃原理와 그 體制

#### 1) 地域計劃

경제정책의 난점은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의 불균등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계획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내에서 이뤄져야 했다. 그것은 올바른 도시계획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지역계획은 生産要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를 經濟地域에 配分하는 종합방안이다.<sup>24)</sup> 이것이 산업체, 도시, 촌락, 교통 및 下部構造計劃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 廣域經濟地域, 共和國, 州(Oblast), 市郡(Gorod 와 Rayon), 촌락 및 地區 등의 지역계층질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계층질서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실제로는 각 공화국이 강력한 의사결정권능을 지니고 있다.<sup>25)</sup> 그 밖에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등의 몇몇 Rayon 들이 다소 강한 권능을 가진다.

지역계획의 主目的은 국토공간의 比例的 均衡開發과 다양한 기능의 재배치에 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수단이 강구된다.

—대도시는 居住許可制(Propiska System)에 의해 전입이 통제된다.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는 산업체의 신설이 제한을 받는다.

—대도시내의 기존 산업체를 衛星都市로 점차 이전한다.<sup>26)</sup>

오랫동안 工業省은 통례적으로 하부구조가 강한 도시에 산업체를 신설했다. 중소도시에는 산업개발목적으로는 투자를 회피하고, 또한 하부구조부문의 투자도 꺼려왔다. 그러나 단지 사회경제적인 이유에서 1966년 부터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상당한 부분의 투자가 중소도시에 할당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27)</sup>

오늘날 계획의 중점은 '統一定居體系'의 개발에 두고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都農間의 地域隔差는 도시적 생활방식을 농촌에 까지 확대보급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전통적인 개념이 없어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전 국토의 도시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통일적 내지 종합적 지역개발계획은 노동력, 하부구조, 투자등에 관한 계획을 상호 잘 연계하여 일체화시켜야 한다.<sup>28)</sup> 특히 서비스공급기능을 기초로 하는 단위지역들의 계층적 질서를 전 국토의 정주체계 속에서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계획은 바로 이점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 2) 綜合開發計劃(都市計劃)

1935년의 모스크바의 구조정비는 소련의 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 계획의 기본원리는 소련내 다른 도시의 구조정비에 표본이 되었기 때문이다.<sup>29)</sup> 한 도시의 종합개발계획 그 자체는 일종의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그것은 用途地域의 구분과 도시계획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전체는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노동, 주거, 휴양 등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 계획은 도시내의 토지이용계

23) Karger, A.u.Werner, F., 1982, op.cit.pp.520 - 521.

24) Deutsche Bauakademie, op.cit.p.12.

25) Gramazki, H.E., 1974, *Räumliche Aspekte der Sowjetischen Wirtschaftsplanung*, Osteuropa-Institut, pp.260 ff.

26) Pallot, J. & Shaw, D.J.B., 1981, *Planning in the Soviet Union*, Croom Helm, London, pp.221 - 222.

27) UdSSR, 1972, *UdSSR 1972*, Verlag der Presseagentur Nowosti, Moskau, pp.278 - 279.

28) Kreis, B.u.Muller, R., 1978, "Stadtplanung in der Sowjetunion", *Archiv für Kommunalwissenschaften*, Jg.17, Bd.2, Deutsche Institut für Urbanistik, p.300. Korfmacher, J., 1975, "Einige Aspekte der städtischen Entwicklungsplanung in der UdSSR", *Archiv für Kommunalwissenschaften*, Jg.14, Bd.1, Deutsche Institut für Urbanistik, p.114.

29) Fickenscher, W.ed., 1959, *Die UdSSR*,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p.779.

획 뿐만 아니라 郊外地域과 周邊廣域綠地帶의 계획도 포함한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근본적 사고를 도시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시계획가들은 투자에 대한 便益最大化를 모색하는데, 대도시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適正都市의 규모를 인구 10-30만 가량으로 본다.

- 도심부는 근본적으로 理想的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그곳은 정치적 회합을 위한 중심점이고, 아울러 공공건물이 자리해야 한다.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택과 토지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가와 계획가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재량권이 있다. 특히 주택은 주로 국가에 의해 지어지고, 분배, 통제된다.

- 거시적으로 공간분화는 서비스기능의 均一한 配置로 인하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간의 기능분화는 비경제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한편으로 부족한 자본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에 일치하여 公共集團的 消費의 가능성이 투자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 국가적, 지역사회적 공공시설물은 사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보다 우선한다.

- 1920년대 이래 Milyutin의 '線形都市' 혹은 '帶狀都市' 개념이 사회주의식 도시계획에 지배적으로 적용된다. 선형도시는 職住를 遮斷綠地帶에 의해 분리시키면서도 직주근접의 원리에 의해 건설된다.

앞에 열거한 원리들은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에 적용되며, 특히 住居地域計劃과 都市再開發事業에 자주 적용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거지역계획과 재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에 주거지역계획을 위하여 '小單位定

住區(Mikrorayon)'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정주체계는 각기 다른 규모를 갖는 정주단위지역들 간에 기능적으로 통일된 계층질서를 보여 주고 있다. 도시의 구조를 이루는 최소기본단위가 바로 '소단위정주구'이다. 이 정주구내에서는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유치원, 탁아소, 국민학교, 생필품가게, 접객업소, 주택행정사무소, 세탁소, 수리소, 운동장, 놀이터 등의 시설들이 모든 주민으로 부터 도달거리 300-500m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주구는 서구에서의 近隣住區와 유사한 것이나, 보다 인위적으로 그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다소 다른 점이다. 대개 4,000 내지 20,000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하지만, 수치는 경우에 따라 가변적이다.<sup>30)</sup>

그 다음의 상위정주단위는 몇개의 정주구를 합친 '住居地域'인데, 도달거리는 700-1,200m를 기준으로 삼는다. 수용하는 주민의 수는 25,000-80,000 가량이며, 지역내에 영화관, 클럽, 도서관, 호텔 등의 상위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병원, 극장, 시장 등의 시설물은 몇개의 주거지역을 묶은 '計劃地域'에 속한다. 하나의 계획지역은 20만 내지 35만의 인구를 수용한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계획지역'이 60-100만 인구를 차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計劃地帶'라고도 한다.

각 계층의 단위지역내에는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은 당해의 국가기관, 특히 國家建設委員會(GOSTROJ)에 의해 입안되고, 필요한 기능의 數理的 계산은 1,000명의 주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자면 1,000명당 35개의 카페테리아 좌석, 15개의 식당좌석, 170-190의 학생정원 등이다.<sup>31)</sup> 전반적으로 이 정주체계는 Christaller의 中心地體系와 유사한데, 다만 도시간의 체계가 아니라 도시내에 그와 같은 체계를 인위적으로 계획함이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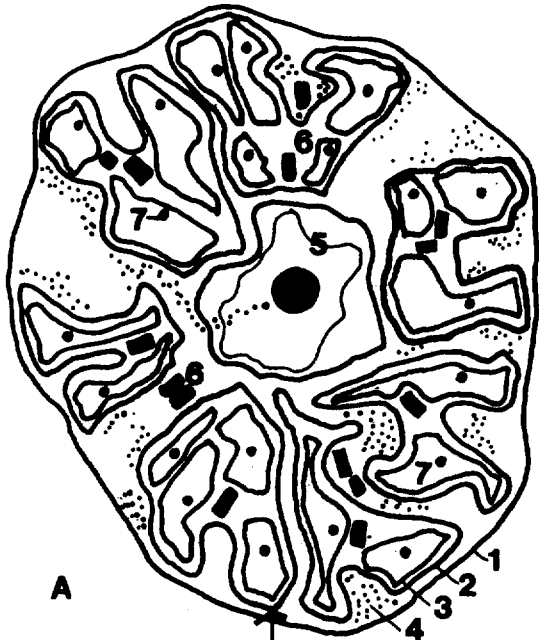
최근에 도시종합개발계획은 역사적 도시의 재개발에 큰 관심을 보인다. 재개발의 강구책은 유

30) Kreis, B.u.Müller, R., 1978, op.cit.p.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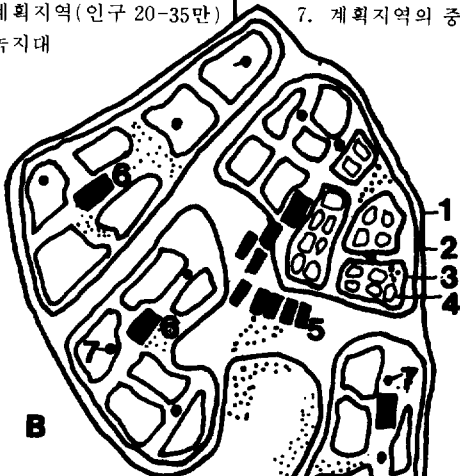
Bater, J.H., 1980, *The Soviet City; Ideal and Reality*, Edward Arnold, p.102.

31) Ibid.p.117.

Deutsche Bauakademie, 1960, op.cit.p.63.



- 1. 시역 (인구 766만)
- 2. 계획지대 (인구 60-100만)
- 3. 계획지역 (인구 20-35만)
- 4. 녹지대
- 5. 도심
- 6. 계획지대의 중심지
- 7. 계획지역의 중심지



- 1. 계획지대
- 2. 계획지역
- 3. 주거지역 (인구 25,000-80,000)
- 4. 소단위정주구 (인구 4,000-20,000)
- 5. 계획지대의 중심지
- 6. 계획지역의 중심지
- 7. 주거지역의 중심지

(Kreis. B.u.Müller, R., 1978: p.315 에서 발췌)

그림 1. 도시정주체계(모스크바의 사례)

서깊은 고건물을 보존하고, 토지이용상 상충되는 기능들 간의 공간적 분리를 행하는 것이다.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의 도심부에 있는 산업체는 외곽으로 이전되고, 그 토지는 3차산업부문의 시설로 대체된다. 레닌그라드에서의 도심의 확장은 개발의 축이 되는 주간선도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40%의 도심부토지가 주거용지로 쓰이고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10-12%로 감소될 예정이다.<sup>32)</sup>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무분별하게 건축된 주거블록의 내부를 제거하는 일이다. □자형의 건물블록내부가 점차 건물의 증축과 개축을 통하여 잠식되어 과밀을 일으키고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도심을 전통적인 도심으로부터 독립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부하라(Buchara)에서는 역사적 기념물이 복원된 도심에서 격리된 곳에 新都心이 건설되었다.

그 밖에 재개발의 중요한 수단은 도시를 환포하는 森林公園地帶를 설정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착안은 1920년대 부터 도입된 선형도시에서 유래한다. 당시에 소련당국의 계획은 전원도시운동에 고무되었는데, 1935년에 이르러 삼림공원지대의 개념이 모스크바도시계획에 도입되었다. 그 후 레닌그라드를 위시한 다른 대도시에도 적용되었다. 삼림공원지대의 계획은 시민의 휴양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막는 데에도 그 의의가 깊다. 삼림지대의 폭은 도시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3-40km의 넓이로 지정되었다.

소련도시계획의 또 다른 양상은 住宅政策에서 엿볼 수 있다. 혁명후 모든 사유주택은 集團化되고 재분배되었다. 심각한 주택난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 이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주택건설에 치중되었다. 물론 국가재정이 결핍하여 組合住宅이나 個人住宅을 허용하기는 하나, 3/4 이상의 주택은 국가재원에 의해 지어지고, 국가에 의해 분배되고 통제를 받는다. 조합주택과 개인주택도 정부로부터 큰 몫을 지원받는다.

32) Kreis, B.u.Müller, R., 1978, op.cit.pp.308 - 309.

이와 같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특수성은 주간선도로, 주택구역, 주택지구 등이 일체화된 경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建築의 工業化를 통하여 조립식의 주택유형별지구계획이 수립된다. 그 결과 주택의 양적 공급은 실현되었으나, 질적인 측면과 형태상 미적 측면은 도외시됐다.

### 3) 計劃體制

가장 핵심적인 계획주무관청은 國家計劃委員會 (GOSPLAN)와 國家建設委員會 (GOSTROJ)이다. 국가건설위원회는 산하에 國家建設建築委員會 (GOSGRAZHDANSTROJ)를 둔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모든 개개의 계획들을 통일적인 국민경제계획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최고의 기능을 담당한다.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한 국가 최고의 지도부서는 연방국가건설위원회 (UdSSR GOSTROJ)이고, 각 공화국에는 그에 해당하는 分局이 있다.<sup>33)</sup> 국가건설위원회는 사업투자계획부문에서 국가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소비에트행정위원회 (GravAPU)는 국가건설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sup>34)</sup> 도시종합개발계획은 통례적으로 국가건설건축위원회에서 입안되어 국가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요약하면 하나의 계획은 다양한 계획주체에 의하여 여러차례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

그 외에 共和國聯盟 (Unionsrepublik)은 주요한 계획관청으로서 막강한 권능을 가진다. 개개 도시 및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계획은 자주 공화국연맹의 각 부서의 部門計劃에 의해 백지화된다.

한 도시 혹은 지역의 계획을 담당하는 최하부조직은 도시행정위원회 (Exekutivkomitee)인데, 상기한 모든 계획주체와는 垂直的으로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 垂平的으로는 지역 정치권, 즉 도시 소비에트 (Stadtsovjet)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문제는 모든 부문계획과 물리적 공간계획간의

조정이 미비한 것이다. 말하자면 전체의 체계는 都市的(공간적)사업과 非都市的(비공간적)사업간의 二重構造로 이루어져 있다.<sup>35)</sup> 지금까지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들 간의 마찰을 잘 조정할 수 없었다. 물론 1957년의 도시개혁령에 의해 도시행정관청은 종래보다 많은 권능을 부여 받았으나, 여전히 국가수준의 의사결정자와 경제부문의 의사결정자가 지역내에서도 지역관청 보다 막강한 권능을 지니고 있다. 도시계획자에게 매우 불리한 점은 개개 산업체와 공화국정부의 잦은 계획변경에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720차례의 도시계획 중 370여 계획이 수정되었다.<sup>36)</sup>

## IV. 都市發達의 變化象

### 1. 規模와 機能에 따른 都市形

소련의 도시들은 규모에 의해 도시 (Gorod)와 都市形 村落 (Poselok goroskogo tipa)으로 구분된다. 최소인구 12,000 이상이어야 도시라 일컬으며, 그것이 3,000 이상일 때 도시형 촌락이라 한다.<sup>37)</sup> 보다 도시화가 진척된 공화국에서는 보다 엄격한 구분조건을 달고 있다. 이러한 경우 85% 이상의 인구가 非農業部門에 종사해야 한다. 都市化率이 낮은 공화국은 당연히 이 기준 보다 낮다. 1970년대 말 도시형 촌락의 총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다소 하회했다.

Harris는 도시를 기능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유형은 州 (Oblast)의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인데, 그들 도시는 혁명 이전부터 이미 성장해 왔다. 이 도시들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여 중심지이론에서 보는 바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분포한다. 두번째 유형은 지역적으로 국한되고 전문화된 공업도시들인

33) Korfmacher, J., 1975, op.cit.p.110.

34) Tauman, W., 1973, *Governing Soviet Cities*, Praeger Publishers, p.43.

35) Ibid. pp.10ff.

36) Bater, J.H., op.cit.pp.130 - 131.

37) Pallot, J. & Shaw, D.J.B., 1981, op.cit.pp.215 - 216.



데, 소련의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한 마그니토고르스크, 스탈린그라드, 노보쿠즈네츠크 등의 도시들이다.<sup>38)</sup>

최근에 와서 도시의 連騰化 내시 집적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새로운 발전추세이다. 다양한 기능의 중심지로서 대도시는 몇개의 위성도시 또는 신공업도시와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담화를 주도하는 대도시들은 유럽지역에 속하나, 쿠이비셰프(Kuibyschew)와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안에, 스베르들로프스크(Swerdlowsk), 페름(Perm), 쉘리아빈스크(Tscheljabinsk)는 우랄지역에, 노보시비르스크(Nowosibirsk)와 옴스크(Omsk)는 소련의 동방정책의 결과로 시베리아에 위치한다. 매우 특수하게 전문화된 도시는 노보시비르스크의 근교에 있는 학술도시(Akademgorodok)인데, 그곳에는 과학자들만 거주한다.

## 2. 人口集中과 都市化

1914년의 농촌인구율이 82%이었는데, 1926년에 77.6%였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제1차 5개년계획의 이전에는 미약한 離村現象을 보였다.<sup>39)</sup> 대규모의 이촌현상은 1, 2차 5개년계획 기간(1928-1937)에 일어났는데, 도시인구는 1926년부터 1939 사이에 2,630만에서 5,610만으로 배가했다. 인구집중의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2차 대전후에도 지속적이었다. 1959년에 도시인구는 1억에 달했는데, 그 중 4,300만은 농촌에서 유입했다. 도시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1970년에는 1억 3,600만을 헤아렸다.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율은 1929년에 19%, 1939년에 33%, 1959년에 48%, 1979년에 와서는 62%에 이르렀다.<sup>40)</sup>

이러한 도시인구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대도시

에의 집중적인 투자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산업도시신설에 기인한다. 1959년 50만 이상의 인구를 갖는 대도시의 수는 25개였으나 1985년에는 51개로 증가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인구율도 도시인구의 1/4에서 1/3로 급증했다.

모스크바의 경우 85%의 주민이 농촌에서 유입한 인구이다.<sup>41)</sup>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인구억제책과 결부되어 도시의 연담화를 야기했다. 그리하여 12-20%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노동력은 주변 지역으로 부터의 通勤者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1968년부터 1970년사이에 도시인구증가분은 960만인데, 그 중 반은 이농인구이다. 이러한 수치는 도시지역에서의 물질적, 문화적 서비스의 우월이 이농을 부채질함을 암시하며,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의 住宅難을 가중시킨다.

한편 위성도시를 포함하는 수많은 신공업도시가 건설되어 도시인구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1차 5개년계획중에 60여 개의 신도시가 생겼고, 1959년에는 900여개에 달했다. 대도시를 둘러싼 지역에 많은 위성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예로서 모스크바의 반경 50km 내에는 1926년부터 1970년 사이에 그 수가 37에서 71로 늘어났다.<sup>42)</sup>

전반적으로 소련의 人口分散策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適正都市規模'라는 개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산업화를 통한 노동력의 재분배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는 실패나 다름없고, 다만 중앙아시아지역에서만 실효를 거두었다. 소련 정부가 들어선 후 유럽지역의 인구는 82.3%에서 76%로 감소한 반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인구는 8.9%에서 10.5%로 미약하게 증가했다. 중앙아시아지역의 인구비는 8.8%에서 13.5%로 급증했다.<sup>43)</sup> 특히 이슬람문화가 지배하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도시인구는 2배 내지 최고 70배 까지 증가를 보였다.

38) Harris, C.D., 1970, *Cities of the Soviet Union*, Rand McNally, Chicago, pp.12 - 13.

39) Eisendrath, E., 1960, *Das Bevölkerungspotential der Sowjetunion*, Sonderhefte Nr.53(Neuefolge), Duncker u. Humblot, Berlin, p.16.

40) Karger, A., 1987, *Sowjetunion*, Fischer Taschenbuch Verlag, p.148.

41) Pallot, J. & Shaw, D.J.B., 1981, op.cit.p.225.

42) Fomin, G.N., 1976, "Scientific Fundamentals and Ways of Realization of the General Scheme of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USSR", *Geoforum*, Vol.7, No.4, Pergamom Press, p.261.

43) Ibid.

### 3. 都市構造變化

사회공간적 도시구조는 공산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원리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상은 사회주의국가 소련의 도시구조에서 몇가지 특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여기서는 도시구조와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부문의 변화까지 포함하여 이를 서구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열거하기로 한다.

#### 1) 職業과 生活樣式의 變化

소련의 도시는 사회문화적 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다른 유럽의 나라와 비교하면 産業勞動者의 비율이 높아서 노동자의 도시라 할 수 있다. 수도인 모스크바와 각 공화국의 수도에는 3차산업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도 다른 서구의 도시에 비한다면 훨씬 낮은 편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산업근로자의 비중이 더욱 높아서 공업도시인 하르코프의 주민 절반 이상이 산업체종사자들이다.

직업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소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서구와는 전혀 다른 문화요소로 등장했다. 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문화가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의 자리를 대신하여 들어섰다.<sup>44)</sup>

#### 2) 都心の 미약한 發達

모스크바와 각 공화국의 수도에는 비교적 상업기능이 활발한 편이나, 도심은 원칙적으로 주민 생활을 위한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의미가 강하다. 군사퍼레이드나 군중집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도심부에는 정치, 행정, 문화를 관장하는 당청사들과 문화궁전등의 관청이 즐비하고, 대로와 대광장들에 의해 사회주의 도시의 경관적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구의 중심업무지구(CBD)에 해당하는 도심의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업서비스기능이 미약하게 집중하고 있다. 중심지로서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유리한 토지의 입지는 地價와 무관하다. 소련 도시에서는 자가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가의 分布圖를 그리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sup>45)</sup> 이것은 물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자가자체가 없는 탓에 계획가들에게는 토지이용에 관한 보다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고, 그것이 위와 같은 사회주의적 도심의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

상대적으로 도심부는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유효하다. 물론 해가 갈수록 도심부재개발사업에 의해 주거기능이 중요성을 잃어 가지만, 아직도 이곳은 常住人口가 가장 조밀한 곳이다. 더구나 많은 공업도시에는 도심이 아예 없다. 예로서 극동의 콤소몰스크(Komsomolsk)에는 산업체들이 전 도시에 균일하게 분포하는데, 주거와 서비스기능이 산업체의 입지에 종속적으로 인접하여 추후 보완결합되었다. 브라츠크(Bratsk)도 이에 대동소이하다.<sup>46)</sup>

#### 3) 高密度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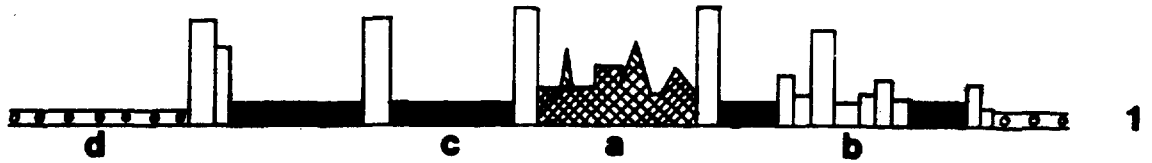
소련의 도시는 다른 선진공업국 보다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낸다. 이 高密度現象은 고층주택을 많이 지음으로써 야기되었다. 자본의 부족과 주택난의 심각성 때문에 고층주택의 건축이 불가피하였다. 건축공정의 공업화가 단기간에 많은 고층주택의 공급을 가능케 하였다. 고층주택은 도심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르기까지 전 도시지역 내에 분포하고있다. 도심에서 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새롭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그 구조상 인구밀도의 距離凋落函數가 현저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거대한 신축공사를 통해 도심부의 혼잡은 완화되었으나 도시주변부는 수많은 고층건물군의 단조로운 경관을 보인다.

역사 오랜 도심부에는 여전히 낮은 건물이 많고 그들 중에는 목재로 지어진 것의 비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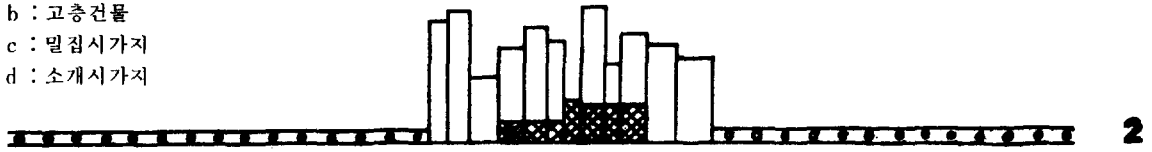
44) Giese, E., 1979, "Transformation of Islamic Cities in Soviet Middle Asia into Socialist City", ed.R.A.French, & F.E.I.Hamilton *The Socialist City*, pp.156 - 157.

45) French, R.A., 1979, op.cit.p.97.

46) Bater, J.H., 1980, op.cit.p.94.



a : 도심부 구시가지  
 b : 고층건물  
 c : 밀집시가지  
 d : 소개시가지



1. 유럽도시 2. 북미도시 3. 소련도시 (Lichtenberg, E., 1986, p.189에서 전체)

그림 2. 유럽, 북미, 소련도시의 경관비교

970년 까지 모스크바에는 1-2층의 건물이 9. %에 달하고, 4.3%의 건물은 목재로 지어졌다. 976년에 와서 2층 이하의 건물은 3.7%에 이르게 되었다.<sup>47)</sup>

재개발사업에 의한 건물의 고층화는 밀집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건물의 평균층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1963년에 모스크바의 建物平均層數는 5.1이었는데, 1971년에는 7.8이 되었다.<sup>48)</sup> 이런 추세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결부하여 계속되리라 짐작된다.

#### 4) 都市内部의 空間構造

소련의 도시계획의 원리가 거시적인 공간의 기능분화 보다는 機能統合을 지향하므로 공간구조는 그 어떠한 고전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기능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선형도시와 통일정주체계의 개념을 통해 언급하였다. 기능통합의 최소단위가 소단위정주구인데, 현재 도시민의 절반가량이 이러한 정주구내에 거주한다.

Burgess의 同心圓理論은 형태상 모스크바와 같은 環狀街路網을 가진 도시에서 다소의 설명력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사회계층과 기능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 Hoyt의 扇形理論은 모스크바 남동방향의 축을 갖는 산업지구를 제외한다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sup>49)</sup> 모스크바의 전원주택지구는 형태상 방사식으로 전개되지만 그 자체가 사회계층의 분포와는 연관이 없다. 多核心理論은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데, 브라츠크나 노보쿠즈네츠크와 같은 신평업도시가 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간적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핵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주택의 조합일 뿐이다.

#### 5) 단조로운 都市景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핵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도시구조나 형태는 공간 또는 지역적으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된 시기에 의해 달리

47) French, R.A., 1979, op.cit.p.88.

48) Bator, J.H., 1980, op.cit.p.108.

49) French, R.A., 1979, op.cit.p.91.

나타난다.

스탈린시대에는 장식이 화려한 石材建物を 많이 지었는데, 흐루시초프( Chruschtschew )때는 벽돌로 된 5층 건물을 획일적으로 많이 건축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체에서 생산한 콘크리트 조립식 건물을, 1970년대에는 고층건물을 주로 지었다. 스탈린시대의 사회주의식 신도시의 뚜렷한 특징은 광장거리( Magistrale )이었다.<sup>50)</sup> 이 대로는 기간산업단지의 開發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대적 산물로서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신공업도시의 경관은 선형도시의 개념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판에 박힌 단조로운 경관을 보여 준다. 1960년대 이래 도시의 이미지는 대량의 Montage 주택건축에 의해 부각된다. 몇 가지 판에 박힌 듯한 유형의 주택들은 도시의 景觀을 단조롭고 인상없이 만들어 버렸다.

#### 6) 都市交通體系

소련도시의 교통은 大衆交通手段을 위주로 한다. 대량운송체계와 직주근접의 원리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중소도시에는 일반버스와 전동버스( Trolleybus )가 주로 이용되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목적별로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전차가 큰 효과를 발휘한다.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상기한대로 교통체계는 도시규모별로 나름의 질서를 정비하고 있다. 또 대도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통행수단의 계층적 질서를 마련한다. 즉 통행거리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도시의 교통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대개 田園大路를 구비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Sadovaya Ulitsa 가 대표적이다.

#### 7) 광활한 公園地帶

전체시민을 위한 휴양시설은 사적인 시설에 앞

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 정주체계 및 교통체계에서 본 바와 같이 휴양시설에도 이용목적에 따른 위계가 존재한다. 근린지구내에는 소공원, 교외지역의 도시교외공원, 일반도시공원 등 다양한 규모의 공원을 이용목적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광활한 삼림공원지대를 도시외곽에 지정하고, 다양한 휴양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선형도시의 녹지대가 대도시에서는 휴양삼림지대로 전이한 것이다.<sup>51)</sup> 모스크바의 주위에는 광활한 휴양삼림지대내에 단기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7개의 休養地區를 계획하여 개발하고 있다. 레닌그라드의 경우는 도시지역내 2,600km<sup>2</sup>와 시경계 밖 200km<sup>2</sup>를 포함하는 삼림지대를 장기체류휴양지로 계획했다.

#### 8) 社會階層의 空間的 分化의 不在

서구 또는 제3세계의 도시와는 달리 소련도시내에서는 슬럼, 게토( Ghetto )를 포함하는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를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성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혹 사회계층이 묵시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주지역별로 분화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와 질에 의해 구분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우파( Ufa )에서 볼 수 있는데,<sup>52)</sup> 다소 직업별로 거주지역의 분화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경향이 불분명하다.

굳이 그러한 분화를 인정하려면 조합주택의 분포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주택은 사적인 수단에 의해 지어지고, 사용자는 상위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주택자체가 사회계층분화의 명확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포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사회공간적 계층분화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시간의 계층분화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집적도시권내에서 지역별로 산업도시가 있고 베드타운( Bedtown )의 기능이 분리되기 때

50) Karger, A.u.Werner, F., 1982, op.cit.p.521.

51) Shaw, D.J.B., 1979, "Recreation and the Soviet City", ed.R.A.French, & F.E.I.Hamilton, *The Socialist City*, John Wiley & Sons, p.125.

Lichtenberger, E., 1986, *Stadtgeographie 1*, Teubner, Stuttgart, p.176.

52) Matthews, M., 1979, "Social Dimensions in Soviet Urban Housing", ed.R.A.French, & F.E.I.Hamilton, *The Socialist City*, John Wiley & Sons, p.112.

문이다. 전형적인 계층분화는 앞서 언급한 과학자도시이다. 요약하면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공간분화는 인정할수 없다. 다만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인종적인 분리현상이 다소 나타날뿐이다. 예를 들면 土着民들이 중앙아시아 도시의 전통적 도심부 부근에 많이 거주하는 점이다. 사마르칸드(Samarkand)에서의 양상이 가장 전형적인데, 토착민들은 舊都心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領域을 이루고 있는 반면, 러시아인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한다<sup>53)</sup> 이리하여 도시는 하나의 兩極都市模型(Biopolare Stadtmodelle)을 나타내 보인다. 그 밖에 카잔(Kasan)에서도 타타르족이 과거의 거주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분화는 小數民族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데에 다소 기여하고 있다.

## V. 結論

소련의 도시구조와 형태는 10월혁명이래 사회주의식 이념과 계획원리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로부터

도시구조에 대한 古典的 理論이 도출 될 수 있었던 서구와 개발도상국의 도시와는 크게 이질적임이 드러났다.

사회주의식 도시는 엄격한 규범에 의해 법칙적으로 질서를 부여 받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계급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유재산의 박탈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주체의 재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 점의 파악이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중앙집권적 계획체계는 비합리적이나, 과거 혁명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강력한 중앙통제 체계하에서 관청간의 협력및 조정이 미비하고 下部組織의 권능이 너무 미약한 것이다.

장차 개혁정책(Perestroyka)에 힘입어 도시 및 지방정부의 권능이 확대되고 自治權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제한된 범위내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자영사업이 허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토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예측되는 바, 도시구조와 형태상의 획기적 변화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53) Bater, J.H., 1984, op.cit.p.152.

## Der Einfluß des sozialistischen Städtebaus auf Gestalt und Struktur sowjetischer Städte

Kang, Kyoung-Won\*

### *Summary*

Die Oktoberrevolution in Rußland ergab sich zwingend aus dem Zeitgeschehen. Die weitere Entwicklung des Landes mußte demgemäß mit einer ganz anderen Vorstellung weitergehen. Die Stadtstruktur und das Gesamtraumgefüge des Landes entwickelten sich nach dem besonderen sozialistischen Planungsprinzipien; damit müssen sie im Vergleich mit anderen Kulturräumen erheblich anders geprägt sein.

Im Gegenteil zu den Städten in den anderen Industrieländern oder Entwicklungsländern, die naturhaft gewachsene Organismen sind, woraus die klassischen Theorien abgeleitet werden konnten, sind die sozialistischen Städte mit strikten Normen gesetzmäßig angeordnet worden. Im Grunde genommen liegen die Ursachen für diese Unterschiede in der kommunistischen

Idee von der klassenlosen Gesellschaft und der daraus resultierenden Abschaffung des Privateigentums. Somit wird die Unmeßbarkeit des Landpreises als ein Anhaltspunkt zum Verstehen einer sozialistischen Stadt für wichtig gehalten, wodurch die Landnutzung noch flexibler ist.

Ohne Zweifel funktioniert das zentralgelenkte System nicht ganz ideal, trotzdem kann die bisherige Entwicklung als ein wesentlicher Erfolg im Vergleich mit der Situation vor der Sowjetzeit bewertet werden.

Das wichtigste Problem liegt in der mangelnden Koordination des zentralgelenkten System. Es ist vorauszusehen, daß noch mehr Autorität den lokalen Regierungen beigemessen wird, aber keine gründliche Abweichung der Bodenpolitik und auch kein rascher Wandel des sowjetischen Stadtbildes zu erwarten ist.

---

\* Dr. Phil. (Geographie).